

‘참사’ 있었던 베이루트... “벤투호, 작은 안일함도 버려라”

오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 치뤄
역대전적 9승2무1패 압도적...1패 베이루트서
2011년 11월15일 일방적 흐름 불구 1-2 충격패

한국 축구사에는 ‘참사’ 쇼크 등으로 표현되는 경기들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대표팀이 예상치 못한 약체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는 결과와 나뉘었을 때 붙여지는 표현으로 오만 쇼크, 몰디브 쇼크, 참사(중국) 참사 등이 그러하다. 이런 흑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베이루트 참사’다. 지난 2011년 11월15일 당시 조광래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전 레바논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베이루트를 방문했다. 당연히 한국의 승리가 예상됐고 경기 내용도 일방적 흐름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결과는 1-2 패배. 바로 2달 전이던 2011년 9월 한국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첫 경

기 때는 박주영의 헤트릭 등으로 6-0 대승을 거뒀으니 충격은 더 컸다. 한국은 지금껏 레바논 축구대표팀과 12번 맞붙어 9승2무1패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그 1패가 바로 베이루트에서 나왔다.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는 말아야 한다. 결전을 앞둔 벤투호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11일부터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아부다비에 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진행해 왔던 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전 세계를 통해 레바논 베이루트로 향한다. 대표팀은 14일 베이루트에서 레바논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을 치른다. 2차 예선을 통틀어 가장 까다로

운 일전으로 꼽힌다. 3차전까지 치른 현재 한국은 2승1무 승점 7로 H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2위 북한과 전적과 승점이 모두 같고 골득실에서 앞서는 근소한 차이다. 격차를 더 벌리고 2020년 일정을 맞아야 한다. 레바논은 2승1패 승점 6점으로 3위다.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3위로 밀려난 레바논 입장에서는 홈에서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할 경기다. 참고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5개국을 8개 조로 나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각 조 1위가 최종예선에 직행하고 2위 가운데 상위 4개 팀이 추가로 최종예선으로 향한다. 2위 안에는 무조건 포함돼야 더 높은 무대를 바라볼 수 있으니 레바논도 한국과의 홈 경기 때 배수진을 쳐야 한다. 경기 장소가 베이루트라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벤투 감독 역시 “레바논은 좋은 상대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상대임이 틀림없다. 2차 예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전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로 이 경기



손흥민 등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예드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레바논 베이루트의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을 치른 뒤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를 준비했다. 선수들 역시 “이 경기에 대한 비중을 잘 알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연히 높은 집중력으로 임하겠으나 작은 안일함 하나까지도

없어야 할 경기다. 원정은 누구와 싸워도 어렵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1차전 역시 2골(2-0 승)을 넣기는 했으나 90분 내내 고전했다. 레바논은 투르크메니스탄보

다 더 강한 팀이다. 과거의 참사 아픔을 씻으려면, 방심도 자만도 모래에 묻고 경기장에 들어가야 한다.

뉴스1

‘대만전 패전’ 김광현 “변명의 여지 없어...시즌 최악투”



12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지바 조조 마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과 대만과의 경기 4회초 1사 2루 상황에서 대만 왕성웨이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준 대한민국 선발 김광현이 아쉬워하고 있다.

대만전 패전을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좌완 김광현이 “변명의 여지 없는 시즌 최악투”라고 스스로를 혹평했다.

김광현은 12일 일본 지바현 조조 마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두 번째 경기 대만전에 선발 등판해 3⅓이닝 8피안타 3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평소의 김광현답지 않은 투구였다. 지난 7일 예선라운드 캐나다전에서 6이닝 1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선보였으나 5일만에 다시 오른 마운드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믿었던 김광현이 무너지면서 한국도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대만에 0-7 충격패를 당했다. 슈퍼라운드 전적 2승1패를 마크한 한국은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실에 등장

한 김광현은 “오늘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던 것 같다”며 “대만 타자들이 지구 타이밍도 잘 잡았고, 변화구 대처 능력이 좋았던 것 같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현은 캐나다전에 비해 구속이 떨어져 있었다. 나흘 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광현은 “4일을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었다. 단순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올 시즌 많은 이닝을 던져서 힘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을 교훈 삼아서 많은 이닝을 던져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겠다”고 끝까지 핑계를 대지 않았다.

“팬들이 본 류현진의 차기 행선지는?”

다저스 45.6%...텍사스 8.7%

자유계약선수(FA)가 된 류현진(32)의 차기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팬들이 류현진이 원 소속팀인 LA 다저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메이저리그(MLB) 이적시장 소식을 주로 접하는 메이저리그 트래더 루머스(MLTR)는 최근 진행한 팬 설문 조사 결과를 1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MLTR은 이번 시즌 자유계약선수(FA) 상위 10명의 차기 행선지를 예상해달라는 질문에 688명의 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팬들은 45.6%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류현진이 다저스와 재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2019시즌까지 다저

스 유니폼만을 입었다. 류현진은 올해 정규시즌 29경기를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작성했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고 29경기 선발 등판 중 10경기에서 무실점을 남겼다. 9이닝당 볼넷은 1.18개다. 최고의 한해를 보내면서 다수의 현지 언론은 류현진이 다저스를 떠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팬들은 류현진이 다저스에 머물 것이라 내다봤다. 다저스 다음으로 최다 득표한 차기 행선지는 텍사스 레인저스(8.7%)다. 텍사스의 뒤를 이어 LA 에인절스(6.2%), 뉴욕 양키스(5.8%), 미네소타 트윈스(4.5%), 샌디에이고 파드리스(3.9%), 필라델피아 필리스(3.7%) 등이 지목됐다.

뉴스1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가 축구 인재를 조기 발굴해 뛰어난 축구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U-12 공개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번 공개테스트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유소년 선수와 축구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이다. 공개테스트는 23일 오후 1시 전남 광양시 금호동 송죽인조구장에서 치러진다. 접수기간은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프로구단 최초로 유소년 클럽을 운영한 전남은 지동원, 윤석영, 이종호, 김영욱을 비롯해 이슬찬, 한찬희, 이유현 등 많은 프랜차이즈 선수를 배출했다.

명품하는 행복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